



제423호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www.unionilbo.com](http://www.unionilbo.com)



대표 전화 : 1533-1545

# 검찰연합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은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김형수 차장검사.

## 윤 대통령, “북, 핵무기 사용 기도하면 압도적 대응 직면”

### 고위력 현무 미사일 추정 영상도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국군의 날인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미 동맹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미국 뉴욕) 순방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과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암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족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해온 첨단전력을 통합하고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 시험비행 성공,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건조,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 전차와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무기와 장비도 없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 대세 변화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총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인구 구조 변화로 병역자원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고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의 정신적 대비태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장병 모두가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국민의 군대, 강군의 면모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군이 과감하게 국방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병사 봉급의 인상과 의식주의의 획기적 향상, 그리고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응징을 핵심으로 하는 3축 체계를 보여주는 영상에서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미사일의 발사 장면이 짧게 노출됐다.

타는 듯한 미사일은 구체적인 제원이 극비 사항이다. 단 한 발로 북한 지하 병기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이 응징·보복·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최강의 재래식 전력으로 꼽힌다.

핵 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전술 핵무기 투하에 벼금가는 위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길암 기자

##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검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30여명 규모  
범죄 포착부터 환수까지 ‘패스트트랙’ 수사

나라 곳간을 좀먹는 탈세와 재정비리 균절을 위해 수사·파세·금융당국이 뭉친 범정부 합동수사단이 지난 9월 30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합수단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단은 재정 범죄가 지능화·대형화·국제화하는데 기관별 수사역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단체, 개인 사업을 지원하느라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은 2017년 59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125조8천억원으로 5년 새 배가 됐다. 그 사이 부정수급액도 1천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처벌 건수는 2017년 176건→2018년 66건→2019년 22건→2020년 23건→지난해 15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매년 6~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탈세 수사도 한계를 보여왔다. 조세 포탈 관련 기소 건수는 2017년 223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관세포탈범 기소는 같은 기간 86건에서 27건으로 줄었다. 범죄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많지만 기관 간 협업체계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합수단에는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여한다. 합수단장은 검찰에서 역외 탈세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전담해온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맡는다.

합수단은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조세·재정범죄와 자금세탁범죄를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포착해 분석하고, 자금 추적과 과세자료 통보, 부정 축재 재산 환수를 지원하면 검찰은 자료 분석과 강제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기관들 사이의 칸막이를 낮춰 범죄 발전부터 수사, 불법재산 환수까지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범식에서 “세입·세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재정 비리를 뿌리 뽑고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가만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래?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쉽고 편한 금융을 선물하고,  
포텐 뻥뻥한 스타트업 쑥쑥 키우고,  
지구 공기를 100년 전으로 돌려볼라 그래!

고객과 미래를 위해  
가만있을 수  
없으니까



신한금융그룹

# 여야, 개천절 맞아 민생 강조, “홍익인간 정신 살려야”

공세도 이어가…“당리당략 위한 국정훼방” vs “외교참사 감추기 매달려”

여야는 3일 개천절을 맞아 ‘민생 우선’을 강조했다.

여야는 또 순방 외교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 등으로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널리 이롭게 한다는 흥익인간의 정신은 민생을 잘 챙겨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흥익인간 정신을 되새기며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도 부족한 시 간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당리당략을 위한 국정 훼방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한 뒤 “야당이 민생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경제 위기로 하루 하루가 걱정스러운데, 대통령은 매일매일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개천절을 맞

아 국민을 이롭게 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흥익인간’의 정신을 되새

겨 국민을 이롭게 하는 국정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송원기 기자



지난 8월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서 관람객이 해군의 수중무인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 군, 정찰용 무인잠수정 2030년대 전력화

국방부, 국감자료…“ADD, 핵심기술 개발 중”

군 당국이 정찰용 무인잠수정을 2030년대에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정찰용 무인잠수정이 2030년대에 전력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찰용 무인잠수정은 2019년 5월에 제32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장

정립하고 관련 기술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찰용 무인잠수정 예산은 2023~2027년 중기계획에 연구개발(R&D) 예산 약 5억원이 반영됐다. 세부 예산 계획은 선행 연구를 완료한 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군은 정찰용에 이어 전투용 무인잠수정 전력화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정찰용 무인잠수정 개발 이후 전투용 무인잠수정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해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준용 기자

## 해외주식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세 인센티브 검토

단순 매도뿐 아니라 환전까지 마쳐야 세제 혜택

250만원 공제 확대·22% 세율 한시 인하안 거론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수급상 외환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동시키려는 것이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 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

에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제도 그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 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일례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주식을 매매하는 서학개미 A씨가 1년 동안 사고 파는

과정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총 1천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면 1천만원에서 250만 원을 제한 750만원에 22% 세율을 적용한 16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이 서학개미들의 양도차익의 실현을 막는 허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학개미들 사이에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기는 경우 매도 주식 수를 줄여 올해는 250만원까지만 양도 차익이 나오도록 매도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추구하는 경우 가 많다.

이때 기본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올린다면 차익실현 규모를 더 늘리는 요인이 된다.

20%로 설정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또한 서학개미들의 차익실현을 도울 방안이다.

정부는 다만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양도세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도해도 계좌에 달려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외환시장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특히 해외주식 계좌에 차익실현 이후 예수금 형태로 남아 있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민경 기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됐을 때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협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24에 접속해

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이 위원회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125차례의 정례회의에서

5천342건의 신청 가운데 4천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전체 신청 사례 가운데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기타 17.5% 등이었다.

/ 이승호 기자

**통하는**

**70**

**도시**

**우리** **김포**

**사통팔달 교통 通!**

**공감백배 소통 通!**

# 오랜만에 잡는 할머니 손…내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방문객,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 면회 가능  
접종 요건 충족하면 제한없이 외출·외박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시 가족과 떠뜻한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까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코로나 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추석 연휴 요양병원 등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가립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만 나누며 그리움을 달래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접촉 면회 허용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정부는 60세 이상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올해 1월 각각 5.32%, 3.10%에서 8월 0.42%, 0.23%로 낮아졌고, 감염취약시설 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천15명에서 9

월 2주 1천75명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지만,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은 자



비대면 면회 후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하는 요양병원 입원자와 가족

유로워진다.

그러나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개편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강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최근 서울의 두 번째 공영형 사립학교로 선정돼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임원 정수의 일부를 교육청 추천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를 말한다.

사립학교의 의사결정 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암고가 첫 모델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외고는 4년간 공공 과제를 수행하고 교육청에서는 연간 3억 원(환경개선비 2억5천만원, 특색사업비 5천만원)씩 총 1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신 서울시교육청 추천으로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2분의 1 미만, 감사 1명을 선임하는 등 공영형 이사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또한 인사관리 공공성 확대, 법인과 학교 재정 투명성·책무성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 박춘배 기자

## 하수처리장에 축구장 짓고 “부담금 내라”…대법 “위법”

LH, 김포시 상대 행정소송…“주민친화시설, 하수도 부담금 산정서 제외”

김포시가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축구장 등을 만들고 그 비용을 택지 조성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가하려다 법원 제동에 걸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우 대법관)는 LH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한

LH는 시에 1천839억 원을 납부하기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09~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완납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2017년 새로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약 138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여

기에는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가 마련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됐다.

1·2·3심은 인화합물 처리시설 등에 들여간 비용을 LH에 새로 부과하는 건 타당하다고 봤다. 문제는 주민친화시설이 하수도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사업계획에 ‘하수처리장 상부 녹

/ 박소희 기자

## 서울 노후 공공어린이집 100곳, 내년 저탄소 건물로 탈바꿈

2026년까지 총 498곳  
‘그린리모델링’…968억원 투입

서울시는 내년에 공공어린이집 100곳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이다.

그린리모델링은 고성능 단열·창호를 보강하고 고효율 냉·난방 시설과 친환경 환기시스템 등을 설치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시는 그린리모델링에 2026년까지 총 968억원을 투입, 총 498개 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지역 온실



서울시 저탄소건물

68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서울시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729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2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 공사를 끝낸 광진구 군자어린이집, 마포구 샘물어린이집, 종로구 조은어린이집 등 3곳에서 모두 30% 이상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군자어린이집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에너지 절감율 58.4%를 기록했다.

시는 연말까지 공공어린이집 54곳을 저탄소 건물로 추가 전환한다.  
/ 김유정 기자

###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054-280-4170  
대표번호 1577-1000

###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포항시

## 민주,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文 서면조사 통보’ 강력 반발

범국민 저항운동도 제안…”尹이 휘두르는 칼날, 尹 발등에 꽂힐 것”



민주당, 감사원의 표적감사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반발,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적인 감사의 방법 등도 감사원에 적용돼야 하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

무총장 등 구체적인 고발 대상, 고발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는 “아직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외교 중 ‘비속어 논란’ 등에 휩싸인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우므로써 우리 사회를 평생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이메일을 즉시 반송 처리함으로써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했다.

/ 송원기 기자

野 “국민대·숙대 총장, 국감 무시한 채 해외 출장”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 임종재 총장을 향의 방문,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정복, 김영호,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3일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핵심 증인으로 체택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이 4일 국감을 앞두고 해외 출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당신들을 죄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종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체택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총장은 이날 몽골로 출국해 오는 10일 귀국하고, 지난 2일 출국한 장 총장은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두 사람을 비롯해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체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역시 장기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표절 논문의 유통으로 국민대·숙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총장이 국감을 무시한 채 해외출장을 떠나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넘어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 정찬양 기자

## 尹대통령 “어르신 존경과 예우, 의무이자 번영의 시작”

노인의날 페이스북 메시지…“어르신 돌봄 체계 확대” 약속

지 상승세(32.3%→32.6%→34.4%→34.6%)을 보여왔지만, 9월 4주째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2.3%포인트 ↑)에서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8.1%포인트 ↑), 부산·울산·경남(3.5%포인트 ↑)을 비롯해 인천·경기(5.8%포인트 ↑)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 김민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 번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그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를 일궈온 땀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독립투쟁의 현장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국 수호의 현장, 가난을 벗어나게 한 산업 발전의 현

장,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인재를 키워 낸 교육과 문화의 현장에도 모두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다”고 기렸다. 이어 정부가 내년도 노인 관련 예산을 증액한 점을 거

론하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와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기틀을 잡아주신 어르신들께서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손해원 기자

SAMSUNG

T7 Shield

압도적 내구성의 포터블 SSD

연속 읽기 성능  
1,050MB/s | 연속 쓰기 성능  
1,000MB/s  
IP65 등급  
방수·방진  
최대 3m 낙하  
충격 보호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새 반경

# The new Kia Ray



Movement that inspires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http://www.kia.com)

기아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들의 산화를 차리겠습니다. 레이 1.0 가솔린 2WD 14인치 타이어 차동·복합연비 13.0km/ℓ(도심연비: 12.2km/ℓ, 고속도로연비: 14.0km/ℓ) 배기량 998cc, 공차중량 1,040kg, 복합CO<sub>2</sub> 배출량 131g/km - 경정 세이 1.0 가솔린 2WD 14인치 타이어 차동·복합연비 13.0km/ℓ(도심연비: 12.2km/ℓ, 고속도로연비: 14.0km/ℓ) 배기량 998cc, 공차중량 1,030kg, 복합CO<sub>2</sub> 배출량 127g/km - 경정 레이 1.0 가솔린 2WD 15인치 타이어 차동·복합연비 11.9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3.2km/ℓ) 배기량 998cc, 공차중량 1,045kg, 복합CO<sub>2</sub> 배출량 135g/km - 경정 세이 1.0 가솔린 2WD 15인치 타이어 차동·복합연비 11.9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3.2km/ℓ) 배기량 998cc, 공차중량 1,035kg, 복합CO<sub>2</sub> 배출량 129g/km.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의 제작·성능상태 및 차량운행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장기 사용구수은 트립·연자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진정한 연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봄는 것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 되어 봄야

당신께 진심으로 힘이 될 수 있으니까

현대해상도 당신의  
마음이 되어 봄니다

마음의 합나다

现代해상

# 러 하바롭스크주서 징집된 예비군 수천명 중 절반 기준 미충족

귀가 조처 후 업무 담당 군사위원 해임…러시아서 무분별 징집 불만 잇따라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동원한 예비군 수천 명 가운데 절반이나 절반 미충족으로 드러나 업무 담당 군사위원이 해임됐다고 3일 인데르팍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하일 데그탸료프 하바롭스크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예비군 동원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하바롭스크주 군사위원 유리 라이코가 직위에서 해임됐다”고 밝혔다.

데그탸료프 주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발령한 이후 하바롭스크주에서는 주민 수천 명이 징집됐다. 그러나 징집센터에 도착한 이들 가운데 절반 미충족은 예비군 동원 기준에 맞지 않아 짐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귀가 조처된 예비군 가운데는 장



징집센터에 모인 러시아 예비역들

애를 앓는 딸을 허로 키우는 남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그탸료프 주지사는 “이번 해임 조처가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부분 동원령 발령 후 징집 대상을 병사 및 부사관으로 전역한 35세 이하 예비군, 초급 장교로 전역한 50세 이하 예비군, 고급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55세 이하 예비군 등으로 한정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1급 장애 있는 예비군, 16세 이하 자녀를 4명 이상 둔 예비군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노인과 환자, 장애인 등 복무가 불가능하거나 면제된 이들까지 무차별로 징집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노소프 마가단주 주지사도 지역에서 예비군을 잘못 징집하는 사례가 잇따라자 동부 군관구 지휘부에 업무 담당 군사위원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인데르팍스통신은 보도했다.

이처럼 예비군 징집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가 안보위원회 회의에서 “부분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실수를 바로잡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반 사례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 한만수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기시다 내각 출범 1년…지지율 급락 위기 극복할까

3개월새 지지율 20%p 급락  
통일교·아베 국장·고물가 원인

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5%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고 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여론조사 기준으로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지지율은 41%이며 10월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며 장기 집권의 벌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448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0%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역시 아사히 여론조사 기준 내각 출범 후 최저 지지율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3%포인트 오른 50%로 처음으로 절반에 도달했다.

/ 연지민 기자

## 인플레이션에 ‘1+1’ 할인행사 사라지는 美 마트

### “공급망 문제 해결 전까진 할인 어려울 듯”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로 미국 마트에서 익숙한 풍경인 ‘1+1’ 등 할인행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

다.



현재 미국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는 21짜리 탄산음료를 1달러가 채 안 되는 가격인

99센트에 판매하는 눈에 익은 할인 행사 를 찾았다는 게 쉽지 않게 됐다.

한 스프 제조사가 10% 할인 제의를 했지만 거절했다”면서 “스프 맷별로 1천200개를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개월간 요구르트와 우유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지 않았다. 고객을 끌어들이는 주력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미 중서부 식료품 체인점 B&R 스토어도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닭고기 가공업체인 샌더슨 농장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매주 닭고기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했지만, 샌더스 농장이 지난 2년간 지원금을 끊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할인행사가 줄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크게 줄었다.

WSJ은 식품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은 공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인행사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 했다.

/ 김나희 기자

2019년 3분기에 미국에서 판매된 식음료 제품의 25.7%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는데, 올 3분기엔 20.6%만이 할인행사 제품에 포함됐다.

WSJ은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유통업체에 판촉 행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왔는데, 제조업체가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해 할인행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식료품점 프레시 마켓 플레이스 총괄 매니저 코스타 드로소스는 “최근

## 대만군, 화색지대 충돌 대비한 对중국 전파전 강화

대만 국방부가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중국의 화색지대 충돌에 대비한 대(對) 중국 전파전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군사정보국(MIB)은 2023년 1억 대만달러(약 45억 2천만원)을 투입해 신형 단파안테나 기지

를 구축, ‘대북 방송’과 같은 형태의 대중국 방송 강화에 나선다.

대만군 측은 이번 신형 단파안테나를 이용한 방송을 통해 중국에 대한 대만의 방송 콘텐츠 전송 외에 선전 전파 및 정보작전 수행과 연락 임무 등을 새롭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위승연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



새로운 에너지 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



## 주변 1km 은행나무길로 유명한 경주 통일전…관광명소 만든다



경주 통일전 가을 풍경

### 경북도, 경주시서 관리·운영권 넘겨받아 장기계획 수립

경북도가 신라 삼국통일 유적지인 경주 통일전을 주변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명소로 만든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반인의 관심에서 멀어진 데다 활용도가 떨어진 통일전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주시에서 관리권을 넘겨받는다.

도는 단순 관람 콘텐츠만으로는 통일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기적 발전계획 마련에 나선다.

통일전은 신라 삼국통일 유적지 조성 계획에 따라 1977년에 조성돼 1987년부터 경주시가 도에서 관리권을 받아 36년 간 운영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국가 차원의 관람 유도로 학



생과 일반인 관람·참배가 많았으나 현재는 관심과 활용이 예전의 명성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학술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국가적 차원의 통일정신 계승을 위한 주요 호국 시설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통일전이 뛰어난 경관과 아름다

운 조경 정원, 화랑정, 연못 등으로 관람

객이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주변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면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근에는 경북산림환경연구소와 조성 이 끝나가는 지방 정원, 화랑교육원, 은행나무길, 남산 등이 있다.

통일전 앞 은행나무길은 직선으로 1km 가량 뻗어있는 아름다운 길로 이름나 있으며 남산은 노천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경주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이 찾도록 할 계획이다.

통일전은 1976년부터 1977년까지 사업비 7억3천900만 원을 들여 경주 남산동 8만2천645㎡에 건립됐다.

본전과 회랑, 화랑정, 기념비, 무명용사비, 사적비 등이 있다. 또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인 태종 무열왕, 문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황룡사 9층 탑 조영도, 삼국통일 영광도 등 17점의 기록화가 전시돼 있다.

매년 10월에는 이곳에서 통일 서원제를 봉행한다. 현재 단순한 관람 콘텐츠로 관심에서 멀어져 매년 관람객이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부터 무료 관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6만4천여 명이 다녀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호국정신은 나라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사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며 “통일전에 깃든 삼국통일의 뜻을 이어 대한민국 대통합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호국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고광복 기자



### 가을축제 한창인 마산로봇랜드

#### 10월 2일 하루 방문객 1만명 넘어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신비한 로봇랜드’

를 주제로 가을축제를 진행 중인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에 2일 하루 1만여명의 입장객이 다녀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로봇과 조형물을 활용한 ‘아스타 국화’, LED 조명으로 꾸민 ‘신비한 정원’, 호박·해골·비석으로 꾸민 ‘ 할로윈 공동묘지 ’ 등을 운영한다.

재단 측은 연극형 공연 ‘겁쟁이 로보의 대모험’을 비롯해 타로와 캐리커처 등도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로봇세일페스타’, ‘드론쇼’, ‘로봇마차 퍼레이드’ 등 로봇랜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로봇 콘텐츠들도 다채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에서는 이 밖에도 쾌속열차, 스카이타워, 회전그네, 별자리여행 등 다양한 놀이기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다.

/ 김채원 기자

### 부산경찰청, 국제영화제 대비 특별 교통관리 추진

부산경찰청은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기간 행사장 주변에서 특별 교통 관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관람객 인파가 많이 몰리는 5일 개막식과 14일 폐막식 저녁 시간대 영화의전당 주변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

통제 시간대와 구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영화의전당과 KNN 사

이 보조간선도로인 센텀서로 500m 구간

모든 차선과 신세계몰 삼거리와 월석아트홀 루터리 사이 센텀5로 200m 구간 모든 차선이다. 또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영화의전당 앞 수영강변대로 200m 구간 1개 차선도 통제된다.

현장에는 교통경찰·사이드카·기동대 등이 배치돼 주변 통제구간과 우회도로를 관리한다.

/ 백혜련 기자

**[사장님 AI 비서팩]**이 알아서 척척 해결해요!

고객 전화 한 통, 한 통이 소중한 사장님을 대신해  
AI가 전화응대를 도와주고 기계정보 안내와 홍보까지 해주니까  
사장님의 장사가 더욱 편해지도록  
KT가 함께 일하겠습니다.

예약·문의 전화도  
어려웠던 홍보도  
모두 다 편한 일로

지금 QR코드 찍고 'KT 사장님 AI 비서팩'을 만나보세요!

DIGICO KT

금융의 모든 순간 \*

NH농협금융이  
변함없이 그린, 세상

우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성장 앞에서 함께가볼 때  
한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크기는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NH농협금융은 탄생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려왔듯,  
변치 않는 상생의 가치로  
푸르른 미래를 그려 가겠습니다.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자산운용 NH농협리조트 NH농협카드 NH농협부자



# 2022 자라섬 남도 꽃정원

2022.9.18(일) ~ 10.16(일)

입장 09:00 ~ 18:00 퇴장 21:00

외부 관광객은 5,000원권 지역상품권을 교환 후 입장 가능  
(면제 : 가평군민, 미취학아동)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세상을 바꾸는  
**K-BAG**  
플로깅 프로젝트

“달리기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모두 모두 건강해져요”

플로깅이라면 쉽고 재미있게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환경 운동가가 되는 이 멋진 운동의 확산을 위해  
KB도 함께 달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실천으로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AG**  
플로깅 프로젝트

K-BAG 플로깅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플로깅을 위한 가방 'K-BAG' 및 '전용 플로깅 kit' 제작, 배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키는 플로깅 문화 확산을 위한 <K-BA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로깅이란? 이식을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것을 말합니다